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아기 예수께 바치는 경배

### - 1994년도 성탄축하 행사들 -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아기 예수가 오셨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여러가지 행사를 마련하였다.

#### ★ 오늘 찬양예배는 성탄축하 음악예배로

오늘 찬양예배는 성탄 축하 음악예배로 드린다.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노문환 장로, 지휘: 허희철 집사, 반주: 안진희·안선영 선생)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찬양들로 성탄의 기쁨을 마음으로, 영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 ★ '94 성탄 축하의 밤

올해도 서울교회 전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내게 된다. 양재역 부근 서초구민회관에서 24일(토) 밤에 진행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예년의 진행방식과는 다르게 참석자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네 개의 파트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다과회(6시 30분 ~ 7시) - 서초구민회관 우측 휴게실에 풍성한 다과상을 마련한다. 이 다과상은 장로님들과 이종윤 목사님께서

은 교우들에게 성탄 선물로 준비한 것이다. 따라서 예년과 같이 다락방별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각 가정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일찍 도착하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한다.

② 예배(7시부터) - 7시부터는 예배를 드린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줄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③ 릴레이 성극 - 세번째는 사랑부 학생들과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의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성극극본이다. 천지창조에서 마리아의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제시된 성탄과 관련된 주제를 각색한 것으로, 한 교회학교 당 3분 정도의 공연이 사회자 없이 조직적이며 부드럽게 이어져갈 축하공연이다.

④ 성탄의 송가 - 이번 행사의 절정을 이룰 마지막 순서는 친숙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 부르며 성탄을 축하하는 순서이다. 가브리엘찬양대, 브라스밴드, 남성 사중창단, 글로리아찬양팀과 온 회중이 운창을 하기도 하며, 합창과 중창, 합주 등으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게 된다.

대형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마지막 찬송인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다함께 합창하며 산타 할아버지들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순서로 「성탄축하의 밤」 모든 행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 ★ 성탄절 새벽예배와 주일 I, II, III부 예배

성탄절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교회에서 드린다.

또한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인 관계로 주일 I, II, III부 예배를 성탄축하예배로 드린다. 이 시간에는 성탄절 특별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다.

#### ★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로

우리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이영세 장로)에서는 금년 성탄절 헌금 전액을 이웃 사랑을 위한 구제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당회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쓰기로 했다. 특별히 아프리카 르완다를 비롯한 극빈자들을 돕기로 하였다. 이미 지난 16일에 한국 기아대책본부(이사장: 강성모)와 월드컨선 한국본부(회장: 후레드 그레고리)를 통해 각각 1만불씩 (한화로 총 1,600만원)을 긴급 구호금으로 전달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 단체 세 곳을 비롯하여 자선 단체들과 서초구 내의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미화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한편 대내 구제대상을 찾아 우리 주님의 나신 날을 함께 기뻐하며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선물을 전달 계획이다.

### 오늘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1995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한다.

#### 1995년도 교육위원회

지도 임진태 목사  
위원장 정병무 장로

서기 나희주 장로    회계 김대호 장로

교회학교	지도	부장	부감
탁아부	유순화 전도사	이영기 장로	서춘식 집사, 이남복 권사
유치부	김경아 전도사	이재권 장로	허찬우 집사, 김명화 집사
유년부	최병호 목사	최종시 장로	권영복 집사, 현정옥 집사
초등부	권상석 목사	나희주 장로	김영준 집사, 최윤정 집사
중등부	김재호 목사	박철훈 장로	임상헌 집사, 이정자 집사
고등부	김용진 전도사	정병무 장로	서문석 집사, 김정희 집사
대학부	김영한 목사	노문환 장로	홍성주 집사, 이정희 권사
청년부	이만열 전도사	김광신 장로	박동춘 집사, 주경자 집사
장년부	박형용 목사	이영세 장로	윤찬오 집사, 이신일 권사
소망부	심상권 목사	홍경호 장로	박두영 집사, 김중복 권사
새가족부	김주아 전도사	김대호 장로	안의경 집사, 이영희 집사
사랑부	임진태 목사	윤봉준 장로	왕경래 집사, 전인화 권사

### 새로 오시는 두 분

#### 박형용 목사 - 장년부 지도로

새해부터 교회학교에 장년부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교회는 박형용 목사를 지도 목사로 청빙하였다. 박 목사는 총신연구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거쳐 에머리 대학교 신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장로교(PAC) 선교사로 현재 합동신학원에서 신약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년부는 1월 둘째 주일부터 소망부 이전의 장년층에 속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매주 II부 예배 후 2층에서 모임을 가지게 된다.

#### 서동일 선생 -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로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로 서동일 선생이 부임한다. 3대째 신앙을 지켜 오는 가정으로 서 선생은 경남 충무에서 태어나 서울 예고, 서울대 음악과 성악과를 거쳐 이태리 로마 국립음악원(Conservatorio di Musica 'S. Cecilia' di Roma)을 졸업하고 현재 경원대학교 성악과에 출강한다.

창세기  
강해



# 어리석은 신자인가

(19장 1절 ~ 17절)

이종운 목사

롯이 소유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타 없어졌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미 노아 시대에 몰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마지막 심판의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나 주님 앞에 바치고 있는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1. 어리석은 신자, 롯

롯은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으나 완전한 신자가 못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음과 동시에 심판날에는 불타 없어질 세상과도 짝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비전을 보고 그를 따라 나섰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번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로운 자'라고 칭할 만큼(벧전 2:7) 훌륭한 신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롯이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소돔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롯은 장막을 소돔 근처까지 옮겼다가(창13:12) 끝내 소돔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14:12). 죄의 물을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 대한 소욕이 있습니다. 아무도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멀리 해야 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시1:1).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신본주의적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롯이 성문에 앉았다(19:1)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면 그 지위를 통해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롯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채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던 어리석은 신자였습니다.

## 2. 어리석은 소돔인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를 바치는 헌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다면 악한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으로 향하는 그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 소돔성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소돔성으로 감으로써 롯은 구조적인 악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했다면 방법도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한 세상에 가는 것과 악한 자의 삶에 동조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했다고 고백한 것(고전 9:22)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처지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이 온 것을 보고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하며 내어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소돔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해 다급해진 롯은 자신의 딸을 내어 놓겠다는 인간적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 3. 지금은 피해야 할 때

천사들은 롯을 향해 매우 급하게 떠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은 심판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함께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최악된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이 밝았고 심판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판이 오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권유했던 롯이 떠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결국 자기 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끌려 억지로 도성을 빠져나가고 있

습니다(17절). 구원을 받기는 받되 세상의 것, 불타버릴 것이 아까워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망합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떠나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피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살 길이란 없습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을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악은 불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소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돔이 우리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과감하게 죄를 떨쳐 버려야 합니다. 불신앙의 죄로 멸망 받은 소돔 사람, 간신히 구원을 받은 어리석은 신자 롯,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들은 롯의 사위 같은 불행한 자가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안목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우연적 사건으로 해석치 않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뿌린 사건과 실로암 당대가 무너져 18명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저들의 죄가 더 많아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재촉하시었다.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죄까지 안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회개하는 운동이 전국 교회에 확산되기를 기도한다.

■ 순례기에 만난 사람

주몽재활원 아이들의 '아버지' 왕경래 집사님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주몽재활원은 장애인 92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곳에 왕 집사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휠체어를 탄 어린이, 몸을 비틀며 걷는 어린이들이 '아빠!'를 외치며 몰려든다.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왕 집사님께서서는 92년도 5월부터 한달이면 두번씩 어김없이 그곳을 찾아 아이들과 몇시간씩 놀아주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아버지라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봉사라는 것이 원래 오른 손 하는 일, 왼 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시며 자신의 일을 밝히기를 쑥스러워 하시는 왕 집사님의 크고 서글 서글한 눈매에 웃음이



◀ 현수막의 「랑」자 밑에 안경쓰신 분이 왕경래 집사님. 사진은 우리교회 사랑부의 「사랑의 큰 잔치」에서 학생들과의 즐거운 한 때.

번지면, 장애인들은 그 뜻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웃음을 따라 웃는다. 오랜 기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봉사해 온 왕 집사님의 미담은 지난 11월에 중앙일보에 크게 기사화 되기도 하였다.

우리 교회의 사랑부에서도 봉사하시고 계신 왕 집사님. 요즈음처럼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왕 집사님의 마음에는 장애인들이 좀 더 따뜻하게 이 겨울을 지낼 묘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 가득 찬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이 오래도록 말씀해 오시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전에, 처음 성탄절에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날(벰후3:10)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작금의 징조는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무서운 일과 하늘이 주시는 것같은 징조(눅21:10, 11)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날은 그리 멀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진

■ 강림절 단상 ②

트럼펫 울리라  
홀연히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 52절)

정으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속마음은 안일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과연 주님을 맞이하기에 걸맞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금의 생활태도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다운지, 회개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고 있는지,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볼 믿음이 있는지 ...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로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 ~ 52절)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트럼펫이 울리고, 우리는 홀연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 ~ 52절)

■ 김천교도소를 다녀와서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이 신 일(권사)

지난 12일(월)에 한나 제 2전도회 임원들은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를 찾았다. 이유가 어떠한 아직은 부모의 파스한 손길에 보호 받으며 공부해야 할 15 ~ 22살의 어리고 젊은 아들들이 어두운 그곳에까지 와있음이 안타까웠다. 다행히도 그들에게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술교육도 병행하면서 선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의 70여 명의 형제들과 함께 12월에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 시간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히 듣는 모습과 힘있게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다.

2부 순서로는 케익에 촛불을 켜고 생일축하노래를 부르면서 생일

을 맞은 형제들을 축하했다. 김중복 권사님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울동을 결단인 복음성가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성경퀴즈대회를 하며 준비해 간 상품을 나누기도 했다.

오가는 시간이 6시간이 넘었다. 처음에 나는 멀미 걱정부터 했는데 즐거움과 보람된 마음에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 황량하게 메마른 차창 밖의 풍경들이 완연한 겨울을 느끼게 했고 한 해도 저물어 감을 실감하게 했다.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대형사건과 사고들이 숨 쉴 틈없이 계속되어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던 올해가 빨리 가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특별히 많은 청소년 범죄와 아버지를 죽인 아들, 죄의 집을 지으며 사람이기를 포기했다던 지존과 젊은이들이 우리를 경악해 했었던 것이 기억났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텐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잠시 들렀다 왔을 뿐이지만 살아 운동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의미있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 '95 청지기수련회

『헌신된 청지기와 교회』 주제로, 8일 ~ 16일까지

1995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헌신된 청지기와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다. 1월 8일(주일) 찬양 예배 시 헌신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하여 제직, 교구일꾼, 권사, 교사, 찬양대원, 전도회 임원순으로 계속되며 16일(월)에 장로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하여 마치게 된다. 직분자별 강의 내용과 강사, 옥삽의 내용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직	교구일꾼	권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전도회임원
일자	9일(월)	10일(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4일(토)
5:00	제직과 섬김	지역장, 권찰, 다락방장의 역할과 임무	권사와 교회 (20:40 ~ 21:30)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	찬양과 예배	전도회임원의 역할과 임무
5:40	강사:이중윤 목사	강사:김재호 목사	강사:장용휘 목사	강사:입진태 목사	강사:최병호 목사	강사:권상석 목사
5:50	자 리 이 등					
	부서별 모임	각 지회별 운영계획	영성훈련 (21:30 ~ 22:30) 담당: 최병호 목사	효과적인 학습지도방안과 부서별 목표설정 담당: 지도 교역자	찬양의 실제	각 지회별 운영계획
6:20	담당: 지도 교역자	담당: 지도 교역자	유순화 전도사	담당: 지도 교역자	담당: 허희철 집사	담당: 지도 교역자

- 청지기수련회 헌신예배 - 8일(주일) 찬양예배 시
- 청지기 수련회는 새벽기도회 시간에 실시, 권사수련회는 수요일부 예배 후
- 장로수련회 - 16일(월) 오전 5시 30분부터
- 직장인을 위해 아침식사 제공

### 산상수련회

신년 1월 6일(금), 소망기도원에서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한 산상수련회가 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곤지암 소재 소망수양관에서 열린다. 강남노회가 주최하여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강남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할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개회예배는 권용평 목사(노회장)가 인도하며, 우리교회 이중윤 목사가 『청지기의 사명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가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당일 점심은 기도원 식당에서 매식이 가능하다. 참가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오는 21일(수)까지 해당교구의 지역장이나 다락방장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된다. 다락방장은 참석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락방장 공부 시간에 교구 담당 목사에게 보고한다.

#### ▶ 광야의 소리 -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 『아나바다』의 생활화

▲ 아껴쓰고 ▲ 나눠쓰고 ▲ 바꿔쓰고 ▲ 다시쓰고

현재 서울의 일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8톤 트럭 2천여 대 분인 16,021톤. 이 중에 2,940톤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150톤은 소각, 12,931톤은 매립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45Kg으로 선진 외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켜 자원의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시내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기로 하고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는 최고 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아나바다』운동의 정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가치있게 잘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제도화해서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까지 와 있는 우리 환경을 생각하면 천국시민된 우리가 창조질서를 보전할 수 있는 일에 솔선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이 인간의 몸과, 남을 생각지 않는 이기심이 빚어낸 결과일진대 마음이 가난한 자와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되새겨 보게 된다. 그 속에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원천적인 동기, 환경과 경제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도 담겨 있다.

### 연말연시 주요 행사 일정

- **임시제직회** / 1994년 12월 25일 찬양예배 후 - 1994년도 결산 승인과 199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건
- **신년예배와 성찬식** / 1995년 1월 1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 **공동의회** / 1995년 1월 1일 III부 예배 후 - 1994년도 결산 승인과 199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건(참석 대상: 본 교회 세례교인)
- **송구영신예배** / 1995년 1월 1일 0시 (1994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입장 완료하여 기도로 준비)

### 실업인선교회 총회 소식

실업인 선교회는 지난 10일(토) 총회를 갖고 회장에 오정수 장로를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회 내의 실업인들이 연합하여 직장선교와 복음화에 일익을 감당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시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바르게 맞이할 수 있도록
2. '9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3. 각 부서들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4.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